

# 동진세미켄, 염료감응 태양전지 도전

KIST 기술 도입 100MW 대구공장 건설 ... 2015년까지 400억원 투입

반도체 소재 생산기업 동진세미켄이 염료감응 태양전지(DSSC)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동진세미켄은 4월24일 대구시와 그린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2015년까지 400억원을 투입해 대구 성서산업단지 인근에 100MW 규모의 DSSC 생산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또 2009년에는 성서공단의 나노부품실용화센터에 DSSC 기술연구소 분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동진세미켄은 연간 1500억원의 매출은 물론 생산공장에 650여명, 연구소에 1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부품·소재사업도 지역 대학 및 중소기업 등과 연계해 연간 1000억원의 매출과 500여명의 고용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동진세미켄은 1967년 동진화학공업사로 출발해 PVC(Polyvinyl Chloride) 및 고무발포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반도체와 LCD 소재산업 분야에도 진출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2008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부터 염료감응 태양전지 셀 제조기술을 이전받아 태양전지 상용화를 위한 물밑작업을 본격화 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23>